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일 시 2021. 10. 22 (금) 14:00~18: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 2층)

주 최 한국법경제학회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의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참석이 확인된 분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은 10월 20일까지 준비위원회(isskra36@gmail.com)로 연락주시면 선착순으로 참석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은 ‘한국법경제학회’ 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rl.kr/sdo8i6>



초대의 글



김 두 얼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21년,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경기 광명에서의 LH직원 보상투기가 제기된 이래, 4월에는 세종에서 공무원들의 보상투기, 9월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논란까지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이슈가 내년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심은 주로 누가 관여되어 있고, 얼마나 이익을 가져갔는지에 있고, 정작 사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용 및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입니다. 내년이면 보상의 역사가 무려 60년에 이릅니다. 짧지 않은 기간 수용 및 보상제도는 빠른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쉽게 그리고 빨리’ 하려는 각종 보상입법들이 공익성, 정당보상, 정당절차 같은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이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외형중심의 경제발전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재산권 보호’ 같은 법치주의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문제투성이’의 수용/보상법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14:00~14:30

참가자 등록

사 회 : 권재현 교수 (인천대)

14:30~14:45

개회식

① 개회사 : 김두얼 교수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14:50~15:20

특별강연

② 공용수용법제의 경제학 :

시장실패의 극복 vs 민간재산권의 강탈

김일중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15:30~16:40

한국의 수용 및 보상제도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발제 1.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의 제고

정기상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발제 2.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현석 공공정책실장 (한국개발연구원)

발제 3.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의 합리적 개편

박성규 연구실장 (한국부동산연구원)

발제 4. 수용 및 보상제도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강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정기상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현석 공공투자정책실장
(한국개발연구원)

박성규 연구실장
(한국부동산연구원)

강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6:50~17:50

종합토론

좌장



윤진수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장경석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정명운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조병구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18:00

폐회

참여자 소개

특별강연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에서 법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장, 성균관대 경제대학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발휘하는 극단의 강제력인 **收用權**과 **刑罰權**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권한남용을 견제코자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법집행과정에서 정부기관이 행사하는 과도재량, 사익추구, 그리고 일탈행위를 검증해왔습니다.

좌장



윤진수

사법시험(18회) 합격 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7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민법을 가르쳤습니다. 현재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재산법과 가족법뿐 아니라 법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발제자



정기상

사법시험(45회)을 합격한 후 2009년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주요 연구분야로는 토지수용법, 조세법, 아동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김현석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공투자정책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법경제학, 환경경제, 산업조직 등입니다.



박성규

법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공적 개발을 둘러싼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제도,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한 공적 가격인 부동산가격공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평가제도와 기준 등입니다.



강준원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변호사시험(10회)을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장경석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하고,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 서울시립대 겸임교수와 주택학회 학술위원장은 역임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와 주택정책, 공공 및 임대주택 등입니다.



정남철

독일 베를린 훙볼트(Humboldt)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숙명여대 법대에서 행정법과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등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법 일반을 비롯, 토지공법, 국토계획, 환경법,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등입니다.



정명운

일본에서 도시계획 석사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2007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 재직 중에 있으며 연구분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후행연구자의 과제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법학을 연계한 지역재생, 빈집, 대심도 등 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공법학회, 지방자치법회 등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병구

서울대에서 법학을, 성균관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한 후 2002년부터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으로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공용수용, 공시지가 제도, 법관인력 구조 분석입니다.